

# 목포 식당인력 소개업소 담합 의혹

6~7개 업체 일당 10% 일제 기습 인상

식당 업주들 어려움 호소…공정위 제소

목포지역 음식점에 식당 여종업원을 소개하는 인력 용역업체들이 일시에 인건비를 인상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식당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목포지역 식당업주들에 따르면 식당에서 하루 일하는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는 6~7개소 인력용역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기준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일당을 10% 인상했다. 인건비 가운데 인력사무소 소개

비 수수료도 기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다.

음식점 종사자들은 기준 6만원씩 하던 용역비(월 180만)도 월급제보다(월 120~150만) 훨씬 많은 데도 기습 인상해 담합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용역비가 높아짐에 따라 월급제로 일하는 종업원들도 이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월급인상을 요구하고,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겠다며 음식점을 그만두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음식업주들은 불경기에

다 인건비 추가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요식업체에서는 너무 비싼 용역비 때문에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음식가격 인상과 함께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식업주들은 “6~7곳의 여성 인력업체들이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담합을 의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와 요식업체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담합 행위에 대해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모든 교육활동

### 학생 중심으로

#### 장만채교육감 완도방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완도교육청(교육장 장재인)을 방문해 읊지연습 상황 보고를 받고 교육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사진>

완도교육청은 ▲‘청해의 일’ 계승 교육심화 ▲맞춤형 영재교육 활성화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작은 학



### 돗자리용 왕골껍질 벗기기

함평군 월야면 응월리 외세마을 주민들이 마을 모정에서 왕골껍질 벗기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주민들은 왕골을 수확해 마르기전 껍질을 벗긴 후 헛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고 살리기 등 역점 추진사업

을 보고했다. 장 도교육감은 청해 초등학교와 완도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현장의 소리를 듣고 청해 초등학교 부족교실 증축을 약속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며 “교직원들의 친절도 향상 및 경직되어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 목포대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

### 풍력 발전시스템 설계·기술 심포지엄

목포대 해상풍력중심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는 20일 오후 3시 영암 현대호텔에서 ‘풍력발전시스템 블레이드 설계 및 제작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풍력발전시스템의 소재와 공정, 환경선 재료연

블레이드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지역 해상풍력기반의 선도산업 발전에 관한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풍력발전시스템의 소재와 공정, 환경선 재료연

구소 박사) ▲Multi-MW급 풍력 터빈 블레이드 설계 및 3D 모델링의 역할(최나준 (주)DNDE 부장) 등 국내외 전문가 5명이 블레이드 설계와 제작기술에 대해 강연을 한다.

목포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기술 및 설계에 대한 정보교환과 핵심 기술의 습득 및 성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구소 박사) ▲Multi-MW급 풍력 터빈 블레이드 설계 및 3D 모델링의 역할(최나준 (주)DNDE 부장) 등 국내외 전문가 5명이 블레이드 설계와 제작기술에 대해 강연을 한다.

목포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기술 및 설계에 대한 정보교환과 핵심 기술의 습득 및 성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믿음 공인중개사

####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 첨단지구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 분할가능 1층이 웃매장들로

형성되어 유통인구가 많아 (병원, 사무실, 학원) 적합

조립, 제조회사 가능하며 지하 주차장 완비

#####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6평, 150평, 134평, 100평 매물  
(다량보유)

구함: 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신단, 매매, 임대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등이며 남면, 진원면, 대치, 수복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동이 빌딩 1층)

### 토지 매매

####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확정)

###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한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 플러스부동산

#### 년 수익률 10% 이상 책임보장

#### 1억직접투자 시

#### 년 1000만원 이상 소득 가능

#### 경·공매 컨설턴트 전문상담

일반 상업용 건물,  
상가, 권리분석,  
임야 영리 계획 작성!

전국: 국·공유지 공매!

철도청, 산림청, 교육청,  
국방부 기타 등

(4차선도로 확장 확정)

#### 노후 대책 최상의 수익사업 ???

※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은 투자 가치가 없다

상급 T.062)226-3377

전화 FAX.226-3389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 금산공인중개사

####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삼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 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형 가능

#####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삼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향지구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T.081-5886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FAX.02-1772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구 광교로 1772)

### 대인동삼일부동산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빌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본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려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광교로 1772

(광주광역시 남구 광교로 1772)

전화 02-1772 011-602-2532

© 탑공인중개사 © 대림124동 후문 입구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 서해해경 헬기, 섬지역 응급환자 수호천사

작년 39명 이어 올 54명 긴급이송

### 해양 오염·불법 조업 감시도 성과

응급의료시설이 열악한 서남해 섬과 바다에서 해양 경찰 헬기가 응급환자 이송에 ‘수호천사’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다.

1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응급환자만 139명이 목포항공대에서 운용중인 헬기 3대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